

회사가 파산하면 도로·터널 운영도 멈출까?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도로, 터널, 항만처럼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사회기반시설은 민간 기업이 짓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짓고(Build), 완공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뒤(Transfer),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며(Operate)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를 취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도로를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지만,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영권도 공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을 맡은 민간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파산관재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5. 6. 선고 2017다273441)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으로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아

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이다. 쉽게 말해, 파산 당시 계약 양쪽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을 이행할지, 아니면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위 대법원 판결 속 사건에서는 BTO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시행자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며 해지권을 행사하려 했다. 만약 해지가 인정된다면,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파산재단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공 인프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했다. 핵심 논거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BTO 계약은 단순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공성을 띤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양 당사자의 의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牽連性: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되려면 서로의 채무가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구조가 인정되지 않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 설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이행 완료했다고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이미 줄 것을 다 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것을 넘어, 공법적 성격을 가진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도산법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원합의체로 처음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TO 방식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교육교부금, 독은 남기고 물길은 넓혀야



김지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물이 불어났다고 저수지의 둑부터 낮출 일은 아니다. 여유가 생긴 물은 가뭄에 대비해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새 수로를 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교육청에 배분되는 현행 구조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약한다며 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세수에 따라 재원이 크게 오르내리는 구조는 손볼 필요가 있

다. 세수가 많이 걷힌 해의 재원을 적립해 결손기에 사용하고,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 적립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성을 줄이는 일과 20.79%라는 법정 기준을 흔드는 일은 다르다. 수문을 고칠 일이지 둑을 낮출 일은 아니다.

법정 교부율은 지역의 재정 현황이나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 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비효율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이 기반부터 약화시키면 세수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결국 학교와 학생을 위한 지출이다.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이 남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급식실은 운영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학생 수만으로 정리할 수도 없다. 특수교육과 돌봄,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처럼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도 넓어졌다. 학

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의 책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부금의 물길은 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은 4년제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다. 국가가 충분히 세우지 못한 대학의 자리를 사립대가 매우며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맡아왔지만, 재정은 등록금과 개별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사실상 사립에 맡겨놓고 국가의 책임은 뒤로 물릴 수 없다. 대학과 평생교육을 교부금의 활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논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79%의 법정 교부율은 지키고 급격한 증감은 완충해야 한다. 재원은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흐르게 하되 교육청과 대학의 집행 책임은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 새 물길을 낸다는 명분이 교육재정의 독을 낮추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 (음 6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생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 줄 것입니다. 72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8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50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62년생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세요. 74년생 애정운이 불리합니다. 86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받은 일고 반만 남은 격입니다.



51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합니다. 6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7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87년생 여형은 길합니다.



52년생 남방향이 길방입니다. 64년생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76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주위를 가득 돌고 있습니다. 88년생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53년생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줍니다. 65년생 금전 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9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54년생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66년생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78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90년생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79년생 술자리를 최대한 피하세요. 91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6년생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68년생 귀인이 동쪽에서 기다립니다. 80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92년생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9년생 신중하고 차분한 행동을 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주의하세요. 93년생 조금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같이 분망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있는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필요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1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기본좋은 약속을 잡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황금이라는 칼

16세기 초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은 신대륙을 찾아 나섰다. 당시 유럽인들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엄청난 황금과 은이 있다는 풍문을 들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지금의 멕시코와 페루 지역에 도착했고 거대한 문명과 마주쳤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안데스산맥의 잉카 문명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새로운 문명과 만남보다 황금에 욕심을 냈다. 원주민들의 신전과 궁전에 있던 금으로 만든 장식품 탈취에 나섰다. 그들은 원주민의 종교적 물건도 오직 돈으로만 여겼다. 잉카의 황제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바쳤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을 손에 넣자마자 황제를 처형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했다. 막대한 재물을 얻은 스페인은 번영을 누렸을까?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남미에서 약탈한 황금과 은이 스페인 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결국, 스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파산을 선언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황금을 손에 넣은 대가가 파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보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 즉 재성의 기운과 일치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명리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유용한 자산이 되지만, 내 기운이 약한데 재물만 넘쳐나면 오히려 재물에 휘둘려 화를 입는다. 16세기 스페인은 막대한 황금을 통제할 만한 경제적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재물을 탐하다 무너진 재다 신약의 상황이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재물은 칼과 같다. 칼을 주방장이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8	5	7	
8				5				
9		1	7					
		8						7
		4	8		2	3		
2						9		
					4	7	5	
			9					1
	3	9	2			4		

		6	8					7	5
			4	7	6				
5				8					2
					4			9	
9									8
	3			1					
6				5					3
				9	6	1			
7	5					4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1	2	6	8	9	
1	8	2	9	6	9	2	8	7
9	6	2	7	8	8	9	2	1
7	8	6	2	8	9	9	1	2
9	9	8	2	1	8	7	6	2
2	2	1	9	7	6	8	9	8
2	7	8	8	9	2	1	9	6
8	1	9	6	9	7	2	2	8
6	2	9	8	2	1	8	7	9

9	2	7	8	8	1	6	9	2
2	9	1	9	6	2	8	8	7
8	8	6	2	9	7	2	1	9
7	9	2	6	1	8	9	8	2
8	8	9	2	9	1	7	6	
1	6	2	8	7	9	9	2	8
2	7	9	1	8	8	2	6	9
6	1	8	9	9	2	7	2	8
9	2	8	7	2	6	8	9	1